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⑨ 깨달음의 본체–여의주와 빛 (1)



▶한줄요약
완전무결한 득도의 표현, '궁극의 깨달음'은 불화 속에서 '여의주'로 묘사된다.

불화 속 깨달음, '여의주'로 묘사

'궁극의 깨달음' 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불교 미술과 불교 경전은 모두 깨달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 미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조형(그림이나 조각)으로, 경전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또는 언어)로 그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불교 그림의 시원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 그려진, 아잔타(기원전 1세기에서 7세기까지 불교 예술로 장엄된 인도 석굴)의 벽화로 잘 알려져 있다. 직관적 전달력에 있어 미술은 문자를 앞서기도 한다.

깨달음의 세계를 시각적 조형물로 표현하는 것은, 어느 시대이건 어느 나라이건, 강력한 방편(方便)이었다. 종교적 도상(圖像) 중에 가장 핵심적인 도상은 무엇일까? '궁극의 깨달음' 또는 '근원적 신성성' 을 나타내는 표상은 무엇일까? 대승불교의 전통에서 '진리 그 자체' 는 근본불로 설정되는 '법신(法身)' 으로 규정된다. 그러면 근원적인 깨달음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표현되는지, 작품과 문헌을 통해 그 내용을 보도록 하자.



사진 왼쪽부터 그림③→②→① 순이다. 고성 옥천사 〈영산회상괘불〉 부분. 궁극의 깨달음은 '여의주' 로 표현된다. 1808년, 비단에 채색, 전체크기 1,006x737cm.

부처님 상호 핵심적 특징

부처님을 부처님이게 하는 요소는 우선 부처님의 얼굴과 머리 모양에 있다. 우리는 부처님 미간의 백호와 동글동글 말린 나발, 그리고 윗머리에 둥글게 올라온 육계를 보고 (일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부처님의 형상임을 안다. 육계에 있는 여의주를 육계 보주라고 부른다. 우리가 백호 · 나발 · 육계 · 육계 보주라고 예사로이 이름 붙인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게 되면, 비로소 핵심이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기 나열한 요소들(백호 · 나발 · 육계 · 육계 보주)의 공통적 특징은 '둥글다' 이다. 미간 사이 둥근 원(속칭, 백호) 속에는 소용돌이의 나선이 돌아가고 있다. 부처님의 머리카락 표현인 동글동글 나발도 소라 모양의 나선으로 돌아가고 있다. 나발 가운데에는 큰 반원의 보주가 보이고, 다시 그 위의 정점에는 동그란 보주가 있다. 어느 것이건 모두 '둥글다' 라는 특징에, 또 하나의 공통적 특징을 더하자면 (그 속에서 에너지가) '회전한다' 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둥근 모양' 은 그 자체로 깨달음의 본체(법신)이고, 그 속에서 회전하는 에너지는 깨달음의 작용(보신)이다. 우리는 눈 · 코 · 입의 사람 형상(응신)에 익숙하기에 그것을 위주로 부처님을 본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깨달음의 모습은 사람 형상을 하고 있지 않다. '둥근 모양' 은 청정한 마음(또는 순수 의식, 우주 의식)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소용돌이 치는 '서기(瑞氣, 신성한 기운)' 는 장엄 에너지의 일어남과 그것의 변화(연기와 무상)를 나타낸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법계연기(法界緣起)' 라고 한다. '청정한 마음' 은 법계이고, '서기' 는 그것을 바탕으로 장엄 에너지가 연기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을 또 다른 말로 '여래성연기(如來性緣起)' , 줄여서 '성기(性起)' 라고도 한다. '여래장을 바탕으로 여래의 성품이 일어난다' 라는 뜻이다.

무엇이 主이고, 무엇이 副인가

부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떠올린다. 그러니까 응신의 형상을 기준으로, "얼굴의 미간에 백호가 있다" 또는 "머리에서 육계가 올라온다 또는 보주가 나온다" 등으로 그 모습이 말해진다. 즉, 사람이 본체가 되고 거기에서 백호나 여의주가 부차적으로 장식되거나 덧붙여진 형태로 설명된다. 하지만, 사람의 형상(응신) 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단위가 여의주(법신)이다. 작고 거친 단위(무명의 세계)로 그것보다 크고 미세한 단위(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언어나 형상으로 법신을 표현할 수 없다('법신비상분' 中)라고 〈금강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법신에서 보신이 나오고, 보신에서 응신이 나오는 '법신→보신→응신' 의 구조이다. 그러므로 여의주의 바탕(법신)에 사람 형상의 응신이 삼신귀일(三身歸一)의 원리로, 하나로 '계합' 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계합이란 '하나가 되다' 또는 '융해되다' 의 의미로 보면 되겠다.

즉, 여의주(법신)와 사람 형상(응신)을 중첩되게 그림으로써 '깨달음과 계합' 된 경지를 나타내었다 하겠다. 이렇게 '하나 된 모습' 을 물아일체(物我一體) 또는 범아일여(梵我一如)라고도 한다.

불교미술, 조형으로 깨달음 경지 표현
원형 · 회전, 도상 內 공통적인 묘사들
'원'은 그 자체로 깨달음의 본체 '법신'
'회전 에너지' 깨달음의 작용인 '보신'

관점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상, 근원적 진리의 모습은 여의주로 묘사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모든 존재의 이면에는 여의주가 있고, 이러한 무수한 여의주의 바탕에는 대왕 여의주가 있다. 대왕 여의주를 마니보주라고 한다.

"이 신령한 구슬(靈珠), 영롱하기 그지 없네/ 본체는 하천과 모래사장 두루 있지만 안팎은 비었네/ 사람마다 부대 속에 당당히 간직해/ 오며 가며 희롱해도 다함이 없네/ 혹은 마니(摩尼)라하고 혹은 영주(靈珠)라 하네/ 이름과 모양 비록 많지만 본체는 같네"
(나옹화상, '완주가(玩珠歌)'中)

개체가 개체의식(에고)에서 벗어나 바탕의식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나와 세상의 실체(실상)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개가(보름달이 있는 줄도 모르고) 냄새만 쫓아 땅바닥만 킁킁댄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무명의 상태→ 고개를 들어 보름달을 본다(자각의 순간)→ 보름달이 되어 이제는 스스로(개)를 내려다 본다.(개체의식에서 벗어나 바탕의식과의 합일한 상태) 관점의 변화를 통해 드디어 전도몽상(顚倒夢想)이 바로잡힌 것이다. 전도몽상이란, 무명 때문에 뒤바뀌고 거꾸로 된 관점이 유일한 관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내가 있다' 고 착각(我相)하는 한, 우리는 전도몽상의 상태인 것이다.

제6차크라와 제7차크라

사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조선시대의 부처님 표현(불화와 불상)에서 '궁극의 깨달음의 도상' 을 살펴보자. 부처님 머리의 여의주 표현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그림①) 얼굴 위로는 큰 반원 형태의 여의주가 보여, '얼굴과 여의주가 중첩돼 있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계합, 하나가 되었다' 는 표현이다. 이러한 상태를 '제6차크라(아즈나차크라, AjnaChakra)와 합체되었다' 라고도 말한다. '미간 차크라' 라고도 불리는 이것과 합체가 되면 '물질을 투과해서 보는 능력' 이 생기는데, 이것을 통찰지(또는 반야지혜)라고 한다. 타 종교에서는 '제3의 눈' 이 열렸다고도 표현한다. 이 차크라는 갖가지 정신집중 상태를 지배한다. 이러한 합일의 상태에서는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시켜 온 우주에 번지게 한다. 수행자들은 아즈나차크라를 통해 '신성성을 자각' 하는 두 번째 탄생을 하게 된다.

얼굴 위로 보이는 반원의 여의주를 (학계에서는) 중간 계주라고 하고, 그 위 또 하나의 여의주를 정상 계주라고 한다. 정리하면, 중간 계주는 제6차크라와 계합한 모습이고, 정상 계주는 제7차크라와 계합한 모습이다. 중간 계주의 한 가운데에 백호가 있다. 백호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것 역시 그 실체는 여의주이다. 백호의 여의주는 중첩된 여의주(제6차크라)의 중심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정상 계주에 해당하는 제7차크라(사하스라라, Sahasrara)는 무엇인가? 사하스라라는 '영광 · 승리 · 완성' 등의 의미로 '깨달음의 성취 또는 완성' 을 말한다. 우주 또는 영적 세계와의 완전한 합일을 상징한다. 백회 자리에 위치하기에 '백회 차크라' 라고도 불린다. 이것과 합일했다는 것은 몸과 연결된 총 7개의 차크라와 전적으로 완전하게 합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 온 누리에 신성한 에너지를 방사한다.

소위 '성자(聖者)' 로 일컬어지는 반열에 들어간다. 완전무결한 득도의 표현! 이상을 통해, '궁극의 깨달음' 은 '여의주' 로 묘사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스스로 발하는 깨달음의 빛' 은 성자들의 머리 주위의 빛(후광 또는 원광)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불교미술에서는 '광배' 로 그려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재에 해설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